

[목회실에서]

“참 감사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김영훈 목사

지난 주일, 설립 70 주년 기념 예배와 웨슬리 윙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칼럼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날의 감격과 기쁨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싶습니다. 사실, 그날의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우려 반 기대 반으로 행사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선 뒤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석하신 교우님들께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Last Sunday we offered a worship service commemo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KUMCGW and a dedication service of Wesley Wing. Even at this moment I am writing this column, it seems excitement and joy of last Sunday have not yet gone. I think we did our best in preparing for the worship services, but we worried as we went. Then, I could feel the help of the Holy Spirit behind our best efforts. So, I think that church members who participated in the services received joy, gratitude and grace that we've never expected. I offer honor and praise to God who is truly with us.

이 행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해 주신 모든 사역자분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모든 평신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I'd like to thank for the service and efforts of all the volunteers, staff and those lay members who worked hard for the event behind scenes.

또한, 전(前) 담임목사님들(조영진 감독님, 김영봉 목사님)께서는 말씀 사경회 둘째 날과 주일예배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교회”라고 하실 때마다, 그 메시지 속에 담긴 우리교회를 향한 간절함과 그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담임목사님들께서 전해주시는 더 따뜻하고 우리의 영혼에 더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In addition, two previous senior pastors (Bishop Cho, Young Jin and Pastor Kim, Youngbong) preached on the second and third days of the three-day worship service. I could fathom the depth of their love toward our church every time they called KUMCGW as 'our church.' That could be reasons why their messages were warmer and moved our spirits more.

예배 (기념 예배/헌당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님들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교우님들과 오랜만에 얼굴을 맞대어 대화하고, 떡과 따뜻한 tea 를 나누며 소리 내어 웃으시며 교제하는 기쁨도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시 133:1)**

Church members who were able to participate the services could enjoy having face-to-face fellowship with other church members they hadn't seen for a long time sharing rice cakes and hot tea. How beautiful it was!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God's people live together in unity!' (Psalms 133:1)**

그날, 우리는 지난 70 년의 시간들을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교회를 향해 밀려오는 도전들을 헤쳐나가기 위해 “진정한 교회의 재건”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 (학 1:2)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신앙공동체의 재건을 시작해야 합니다.

That day we thanked the 70 years of time. Now, we must start 'to rebuild a true church' to wade through waves of coming challenges toward our church. Instead of saying 'the time has not yet come' (Haggai 1:2), we should start to rebuild the beautiful church God wants.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렘 29:11)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름다운 신앙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Dear beloved church members, it says God is with us. I hope you would pray and dedicate to rebuild a beautiful faith community trusting God who gives 'you hope and a future' (Jeremiah 29:11), not fear of a future.

신명기 31:6 절 말씀을 인용하며 맺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Let me wrap up with Deuteronomy 31:6,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afraid or terrified because of them, for the Lord your God goes with you;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